

비판사회학 소식지

평등 비판사회학회 Critical Sociological Association of Korea

권두언

학이불사즉망, 사이불학즉태 (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

■ 최 현
(비판사회학회 부회장/제주대)



2022년 봄부터 2023년 여름까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듀크대에서 연구년을 보내고 있다. 10여 년간 연구재단 연구에 책임연구원을 맡다 보니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이 목을 맬 수밖에 없었다. 책이나 논문도 제주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의 공동자원과 관련된 것을 주로 읽을 수밖에 없었다. 연구년 동안에는 좀 더 다양한 주제의 책을 읽을 계획으로 못 읽었던 <헤겔>, <앨버트 허시먼>, <근대 시민의 형성과 대한민국>, <장기 20세기> 등과 함께 불경과 유교 경전 몇 권을 가져왔다. 불경과 유교 경전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연구년 오기 전 한두 해 사이에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을 차례로 여의고 나서다. 특히 아버지까지 돌아가시고 나니 갑자기 '고아'가 된 기분이 들었다. 60이 가까워진 나이에 '고아'라면 어찌가 있지만, 큰 상실감과 함께 사는 게 뭔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됐다.

내가 기독교나 이슬람교보다 불교나 도교, 유교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은 사회학자로서 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하지만, 독실한 원불교 교도였던 어머니의 영향도 있었을 것이다. 불교를 공부하면서 놀란 것은 많은 사람의 상식과 달리 부처가 윤회설을 비판했다는 것이었다. 브라마교나 힌두교의 윤회설은 신분제와 숙명론을 정당화했는데, 붓다는 윤회설을 비판하고 연기설을 제시하면서 누구나 붓다가 될 수 있다며 평등주의 사상을 폄파했다는 것이다. 붓다가 제시한 연기설과 공(空)사상은 자아가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사회학적 통찰과 연결된다. 하지만 사회학에서 주체의 사회적 구성 또는 호명(呼名)이란 통찰이 주체의 소멸을 가져올 위험을 안고 있듯이 불교의 공사상 역시 허무주의로 귀결될 위험을 안고 있다. 그런데 많은 불제자가 이를 직시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려 하기보다 허무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영원히 존재하는 자아를 설정하는 윤회설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다음 면 계속)

발행인: 서동진 / 편집인: 김명수

주소: 03980 서울 마포구 동교로 51길 77 2층

비판사회학회

Homepage: www.criso.or.kr

E-mail: sansahak1984@gmail.com

사회학자들 역시 비슷한 딜레마를 안고 있다. 주체가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무엇을 근거로 어디까지 사회적 주체 또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붓다는 공(空)사상을 통해 자아가 환경 속에서 발생하고 변화하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 인간이 환경의 제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윤치이 며 거기서 벗어나 ‘혁명적 실천’을 하는 것이 인간의 참된 자유이고 그것이 바로 해탈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사회 학적으로 보면, 환경이나 구조에 따라 꼭두각시처럼 행동하는 것은 노예의 길이고, 거기서 벗어나는 ‘혁명적 실천’이 자 유의 길이라는 것이다. 불교적 윤리는 자유와 해탈을 향한 갈망으로부터 나온다.

사회학적으로뿐만 아니라 공(空)사상적으로도, 인간은 환경에 의해 구성되기 때문에 ‘혁명적 실천’은 반드시 자기변혁 과 함께 사회변혁을 이루어야 한다. 하지만 붓다의 가르침에는 자기변혁보다 사회변혁을 다루는 내용이 턱없이 부족하 다. 당시 인도 지식인들은 개인적 해탈에 관심을 집중했고 사회관계를 정비하는 데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상황에 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인간에 대한 통찰에서는 약 2,400년 후의 마르크스와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 만, 붓다는 “환경의 변혁과 인간 활동 혹은 자기변혁의 일치는 오직 ‘혁명적 실천’으로서만 파악될 수 있으며, 또 합리적 으로 이해될 수 있다(포이에르바하에 관한 테제)”는 인식이나 실천에는 이르지 못했다.

주회를 비롯한 송대의 유학자들이 붓다의 가르침에 경탄하면서도 붓다를 비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문 제 때문이 아니었을까? 붓다의 가르침은 중국 사상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하지만 중국 지식인들은 훨씬 더 깊이 가 족과 사회에 뿌리 박고 있었다. 그들의 관심은 온통 가족, 공동체, 국가가 조화 속에서 풍요롭게 지낼 방법을 찾는 데 쏠 려 있었다. 따라서 완전히 체계를 갖춘(우주론, 인식론, 윤리론을 모두 포괄하는) 붓다의 사상이 정치철학이나 윤리학에 편중된 중국의 기존 사상을 왜소하게 만들었지만, 중국의 사상가들은 불교에 완전히 만족할 수 없었다. 주자를 비롯한 중국의 사상가들은 불교의 자극을 받아 중국적 우주론, 인식론을 만들면서도 불교가 인간의 사회적 책임이나 사회생활 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비판적이었던 것이다.

중국에서 주자학은 불교를 통해 유교를 발전시키고 불교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결과였다. 붓다의 가르침은 개인의 삶 이 부모형제, 가족, 이웃, 공동체, 국가, 인류와 어떻게 연결돼 있고 어떤 책임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다루지 못했 다. 따라서 불교는 인간이 출가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해야 할 이유를 제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보 완하기 위해 중국 불교는 <불설부모은중경>을, 한국 불교는 <불설대부모은중경>을 창조했다. 하지만 불교는 일반 민 중에게 일상생활을 권장하고 다양한 사회적 부조리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불교 국가 고려를 개혁하기 위해 주자학으로 무장한 사대부들이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다.

(다음 면 계속)

우리나라 대학에 사회학이 소개된 것은 100년 가까이 됐고, 사회학자가 만들어진 것은 80년 가까이 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적 사회학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없다. 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먼저 사회학이 소개된 일본이나 중국 등에서도 아직까지 독자적 사회학 이론이나 방법을 만들어 내지 못한 것을 고려한다면 아주 늦은 것은 아니다. 동아시아가 서구의 근대화를 따라오는데 급급했던 가운데, 동아시아의 사회학자들은 오랫동안 서구의 사회학을 소개하고 이해하는데 급급했다. 서구를 잘 배우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하지만 코비드19 팬데믹과 같은 새로운 상황에 미국과 서유럽보다 우리를 비롯한 아시아의 국가와 사회가 더 잘 대응했다. 서구의 국가와 시민사회가 가진 한계와 우리를 비롯한 동아시아가 가진 장점을 볼 수 있었다. 개인주의를 비롯한 서구적 인간관과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 운영 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을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닐까?

공자는 <논어>에서 “배우되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배움에 간히고, 생각하되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고 가르친다. 특히 앞 구절이 나에게서는 뼈아픈 경구다. 책을 읽을 때 좀 더 깊이 숙고하며 비판적으로 검토하지 못했다고 반성한다. 사회학의 거인들이 이론 성취에 경탄하며, 그것을 비판적으로 숙고하기보다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급급했다. 불교는 성불하기 위해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야 한다”고 가르친다. 진리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서구에서 발전한 사회학을 성실히 배우면서도 우리 사회의 보편적 인간관, 가치관, 사회관계를 바탕으로 사회학의 거인들이 일군 성과의 한계를 드러내야 할 것이다. (끝)

제28회 비판사회학 콜로키움

**연대의 토크, 첫번째
복합적 위기와 기후정의 운동**

일시: 7월 6일(목) 16:00~18:00

사회 전의령(전북대 고고문화인류학과)

발표 김선철(기후정의활동가)

패널 홍덕화(충북대 사회학과), 김지혜(이화여대 이화인문과학원)

장소 필로버스 (마포구 서교동)
(온라인 중계 ZOOM 876 5278 8093 PW: 2023)

문의 sansahak1984@gmail.com
* 이번 행사는 현장참여도 가능합니다

비평사회학회

28회 비판사회학 콜로키움

연대의 토크, 첫번째: 복합적 위기와 기후정의 운동

7월 6일(목) 16:00~18:00
필로버스 (마포구 서교동)

- 발표: 김선철 (기후정의활동가)
- 사회: 전의령 (전북대 고고문화인류학과)
- 패널: 홍덕화 (충북대 사회학과)
김지혜 (이화여대 이화인문과학원)

※ 현장 참여 행사(ZOOM 중계 병행)로 진행합니다.

콜로키움 & 정세토론회

제27회 비판사회학 콜로키움

취미에서 일자리로:
청년 노동자의 온라인 노동 플랫폼에 대한
종속성 형성과정 고찰

일시: 3월 24일(금) 오후 4:00~6:00



사회 임운택(계명대)

발표 노성철(일본 사이타마대) · 류연미(서울대)

토론 박수민(연세대), 하대청(광주과기원)

진행 온라인 중계 ZOOM 674 287 2245 (PW: 2023)

문의 sansahak1984@gmail.com

* 현장참가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반드시 운영위원회 메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비평 비판사회학회



끝없이 퇴행하는 윤석열 정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윤석열 정부 1년 노동·사회정책 평가 토론회

2023. 5. 9.(화) 10:00 - 12:30(1부) / 13:30 - 15:30(2부)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212호실

1. 노동정책 진단 및 과제

사회 이병훈 중앙대학교 교수

발제 ① 노사관계

정호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발제 ② 노동시장 노동정책

김유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토론

• 문지현 충남대학교 교수

• 김지현 청년유니온 정책팀장

• 김재현 한국노동정책연구소 정책연구팀장

• 김재현 한국노동정책연구소 정책연구팀장

• 김재현 한국노동정책연구소 정책연구팀장

• 김재현 한국노동정책연구소 정책연구팀장

2. 경제정책과 사회복지,
공공서비스 평가와 과제

사회 정세은 중앙대학교 교수

발제 ① 경제정책

니원준 경북대학교 교수

발제 ② 사회복지정책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서울대 교수

토론

• 이상현 한국중소상인연합회 정책연구팀장

• 이재준 공적연립공공주택정책팀장

• 김재현 한국노동정책연구소 정책연구팀장

• 김재현 한국노동정책연구소 정책연구팀장

• 김재현 한국노동정책연구소 정책연구팀장

• 김재현 한국노동정책연구소 정책연구팀장

민주노동, 비판사회학회, 참여연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산업노동학회

춘계학술대회

2023 비판사회학회 춘계학술대회

2023년 4월 29일(토) 13:00~18:30

부산대학교 사회관

208호(기획), 102호(일반1,3), 110호(일반2,4)

주최 · 주관 : 비판사회학회,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후원 :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지역과 한국사회

기획세션 1 지역 정치와 환경 운동

사회: 한상진(울산대)
토론: 김주호(경상국립대), 주윤정(부산대)

고리원전의 수명연장을 둘러싼 위험거버넌스의 변화 및 특징
고리 핵발전 사업 전개와 주민운동, 국가폭력, 느린재난
진주에서 지역정치하기

발표: 민은주(부산환경연합)
발표: 정수희(부산대 SSK 느린재난 연구팀)
발표: 최승제(진주주민연대)

일반세션 1 노동과 실업

사회: 임운택(계명대)

윤석열 정부 노동 통제전략, 몇 가지 문제 제기
제도가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어떻게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가?
: 윤임 문제를 중심으로 본 화물운송노동자 이해대변운동의 발전
한국형 실업부조에 대한 제도적 검토

발표: 노중기(한신대) 토론: 신원철(부산대)
발표: 강경희(서울대) 토론: 박명준(한국노동연구원)
발표: 양소영(부산대) 토론: 유형근(부산대)

일반세션 2 도시, 공간, 장소

사회: 윤상우(동아대)

'산복도로 르네상스'의 단상: 부산(동구·중구)의 도시재생정책
대학 공공육의 사교육화와 '지대 추구' 문제
북한 '지방경제'의 발전과 평가: 시장화 흐름을 중심으로

발표: 정소영(부산대) 토론: 이항아(경상국립대)
발표: 임정빈(경상국립대) 토론: 김명수(전남대)
발표: 윤세라(동국대) 토론: 구본우(청원개발연구원)

기획세션 2 지역 도시와 문화적 실천

사회: 서동진(계원예대)
토론: 권범철(서울시립대), 김성준(부산북구문화도시지원센터)

도시 의제, 문화예술로 대응 사례
한국 로컬출판의 현재와 사회적 의미
국내 도시 담론의 연속과 단절: 포용도시 담론을 중심으로

발표: 고윤정(부산 영도 문화도시센터)
발표: 장한정(호림발출판사)
발표: 정현일(창원대)

일반세션 3 종교, 문화, 상징

사회: 박치현(대구대)

한국교회와 전염병
한국대중음악산업의 불공정계약관계의 실태연구: 아이돌 연습생을 중심으로
부마항쟁 기념에 관한 비판적 연구: 기념물을 중심으로
20-30대 남성의 독서 행위를 통해 바라본 다원주의적 남성성 각본 쓰기

발표: 방용덕(경상국립대) 토론: 이정연(서울여대)
발표: 김선영(계명대), 임운택(계명대) 토론: 김성윤(중앙대)
발표: 박지영(부산대) 토론: 조정우(경남대)
발표: 박정오(부산대) 토론: 김주환(동아대)

일반세션 4 정치, 청년 자립, 계층

사회: 김주호(경상국립대)

조율정치로서 사회적 대화와 그 대면성
라이프코스관점에서 바라본 보호시설퇴소 청년의 자립과정과 사회적 자본 연구
한국인 계층의식 특성 및 결정요인 연구: 2020년 부산 지역사회조사를 중심으로

발표: 박명준(한국노동연구원) 토론: 지주형(경남대)
발표: 박상은(부산대) 토론: 정수남(전남대)
발표: 박석훈(서울대) 토론: 권수현(경상국립대)

라운드 테이블: 지역에서 사회학하기
사회: 김주환(동아대)

김명희(경상국립대)
주윤정(부산대)
정수남(전남대)

춘계학술대회:
현장 스케치

“핵발전소 지역에서 그만큼 많은 주민운동이 형성되고 격렬하게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 지역에는 핵발전소가 추가로 건설되고, 수명연장이 진행되고, 또 지금은 핵폐기물까지도 떠안을 상황이 되었을까? ... 핵발전소 주민의 입장에서는 폭력과 재난의 연속이자 일상화이다. 핵발전의 도입과 건설, 운영을 거치면서 주민들은 끊임없이 직간접적 국가폭력과 마주하며 살아남기를 해야 했다. 지속적 폭력과 저항의 연속은 그 자체로 폭력이자 재난의 연속 상황이다. 또한 세계최대의 핵발전 밀집도를 자랑하며,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에다 핵폐기물까지 떠안아야 하는 주민들의 처지는 역시 그것 자체로 재난의 축적이다.”

정수희, 「고리 핵발전 사업 전개와 주민운동, 국가폭력, 느린재난」 中

“로컬출판은 서울 중심, 주류 중심, 규모 중심 등 기존 가치관에 대항하는 새로운 부족주의의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 한국 사회 공동체 문화의 새로운 경향을 보여준다. 이는 다시 독립서점, 독서모임 등의 커뮤니티로 미끄러지고 새로운 연결망으로 이어지면서 관심의 공동체에서 실천의 공동체로 복합적이면서도 입체적으로 이행하는 경향을 보인다. 거칠게 요약하면, 1990년대 말 출현한 인디문화와 DIY를 거쳐 현재의 로컬출판은 더 진화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로컬출판은 새로운 성격의 부족 출현 증명을 위한 하나의 소재이다.”

장현정, 「한국 로컬출판과 현재와 사회적 의미」 中

“포용도시 담론이 나름의 한계 속에서도 대안적 도시의 모습을 엿보게 했다면, 현재는 새로운 대안이 부재한 상황에서 기업주의 도시 담론으로의 회귀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시에 대한 권리에 따르면 도시민이 없는 곳에서는 도시 또한 존재할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시민이 배제된 채 비대해진 도시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 할 것이다. 과거 기업주의 도시 담론이 보여줬던 실패가 미래에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도시 담론을 형성하는 또 다른 주체이기도 한 학계의 비판적이면서도 건설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정현일, 「국내 도시 담론의 연속과 단절:포용도시 담론을 중심으로」 中

비판사회학교

<2023 비판사회학교>가 열립니다!

2023 비판사회학교

수강생모집

비판사회학회는 비판적 연구와 실천적 변화를 위한 연구자 모임입니다. 사회학에 대한 도전적 관심을 가진 대학원생·학부생의 학문적 관심사 발전을 돕고자, 여름방학 동안 <2023 비판사회학교>를 운영합니다. 학교 수업만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운 내용을 사고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회학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적 연구에 관심 있다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비평 비판사회학회

사회학에 대한 도전적 관심을 가진 대학원생들과 학부생들의 학문적 성장을 돕고자, 비판사회학교 그 세번째 학기를 운영합니다. 학교 수업만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함께 사고하고 발전시키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회학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현대사회에 대한 비판적 연구에 관심있는 분들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개설과목

3개 과목 개설 / 각 과목 당 강좌 5회 운영 (강좌는 zoom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

- ① 질적연구방법 워크숍: 현장연구실습
- ② 노동사회학
- ③ 인간 너머의 정치경제: '위기'의 비판사회학을 향하여

운영기간

7월 17일 ~ 8월 11일

수강료

과목당 7만원 (수강신청은 과목별로 가능하며, 과목 내 강좌별 신청은 불가함)

신청기간

7월 1일 ~ 7월 10일

신청방법

구글폼으로 신청서 접수

신청서 링크

학회계좌로 수강료 납부 후 신청이 완료됨. 신청완료 후 이메일 개별 통지
단, 질적연구방법 수강은 현장연구를 실행(계획)하고 있는 15인 안팎으로 제한,
신청 확정 공지를 받은 뒤 수강료 입금 (계좌: 국민은행 533301-01-096442 / 비판사회학회)
sansahak1984@gmail.com

문의

■ 〈비판사회학교〉 강의 일정

질적연구방법 워크샵: 현장연구실습

※ 모든 강좌 진행시간은 15:00~17:50으로 동일
(단, 질적연구방법 워크샵 5강은 18:00~20:50에 진행)

질적연구방법에 대한 간략한 소개: 연구주제 선정, 연구방법, 연구윤리
최인이(충남대 사회학과) **7월 17일(월)**

연구 현장 속으로: 참여관찰
서선영(충북대 사회학과) **7월 20일(목)**

연구 현장에서의 만남: 심층 인터뷰
장호진(연세대 문화인류학과) **7월 24일(월)**

참여관찰 실습: 필드노트 리뷰, 그룹 토론과 피드백
서선영·장호진 **7월 27일(목)**

심층인터뷰 실습: 녹취록 리뷰, 그룹 토론과 피드백
서선영·장호진 **8월 3일(목)**

노동사회학

※ 모든 강좌 진행시간은 15:00~17:50으로 동일

생산방식, 작업조직, 노동과정
김철식(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7월 31일(월)**

노동운동과 노사관계
유형근(부산대 일반사회교육과) **8월 1일(화)**

노동의 디지털화
임운택(계명대 사회학과) **8월 2일(수)**

국제적 분업구조와 노동이주
김철효(경상국립대 사회학과) **8월 3일(목)**

노동시장과 불평등
조현진(한국노동연구원) **8월 4일(금)**

인간 너머의 정치경제: ‘위기’의 비판사회학을 향하여

※ 모든 강좌 진행시간은 15:00~17:50으로 동일

자본주의와 형성적 위기를 함께 말하는 하나의 방법: 제이슨 무어의 세계생태 분석
이광근(동국대 다르마칼리지) **8월 7일(월)**

‘위기’의 교차성과 에코페미니즘의 비판적 질문
김신효정(에코페미니즘연구소 ‘달과 나무’) **8월 8일(화)**

‘위기와 함께 하기’: 인류세와 멸종의 비판적 민족지학
전의영(전북대 고고문화인류학과) **8월 9일(수)**

성장의 한계와 탈성장 대안
김현우(탈성장과 대안 연구소) **8월 10일(목)**

‘지금, 여기’의 기후정치
홍덕화(충북대 사회학과) **8월 11일(금)**

2023 비판사회학교 수강 안내

개설과목

3개 과목 개설,
각 과목 당 5회 강좌 운영
① 질적연구방법 워크샵: 현장연구실습
② 노동사회학
③ 인간 너머의 정치경제:
‘위기’의 비판사회학을 향하여

기간

7월 17일(월) - 8월 11일(금)
(과목별 수강일은 다음 장 참고)

수강신청 기간

7월 1일(토) - 7월 10일(월)

수강료

과목당 7만원, 3개 과목 함께 수강 시
비판사회학회 회원 자격 2년 부여
수강 신청은 과목별(5개 강좌)로 가능,
과목 내 강좌별 신청은 불가함

수강신청 방법

구글폼(forms.gle/J3XYejnNVzU7rj
PR9)으로 신청서를 접수, 수강료 납부
후 개별 공지
(국민은행 비판사회학회
533301-01-096442)

／ 단, 질적연구방법 수강은 현재 현장 연구를 실행(계획)하고 있는 15인 안팎으로 제한.
구글폼에 기재한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선정, 신청 확정 공지를 받은 뒤 수강료 입금

상세 강의계획서 보기

2023 하계 학술대회

비판사회학회 2023 하계 학술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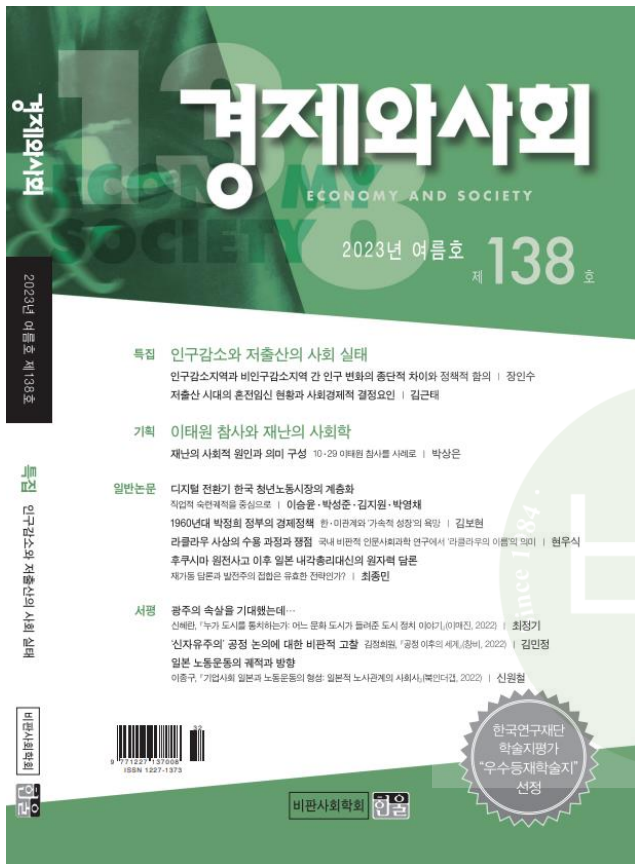
비판사회학회는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및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와 2023년 하계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비판적 사회과학 연구에 관심을 갖고 있는 대학원생들이 관련 주제를 연구하는 전문 연구자들이나 동료들과 학문적 관심을 나누고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될 것입니다. 비판사회학을 지향하는 연구자들 간의 학문적 소통과 유대감을 높이고 연구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도 진솔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 날짜: 8월 17~18일(목~금)
- 장소: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 행사 프로그램
연구논문 발표(15편) 및 특별세션
- 참가비: 3만 원
발표자에 한하여 교통 실비 및 숙소 지원(단, 지역 간 이동에 한함)
- 후원: 국민은행(예금주: 비판사회학회) 533301-01-096442

대학원 석박사과정에 있는 신진연구자들을 위한 행사인 만큼 선배 연구자께서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행사 후원을 하실 회원께서는 학회 계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학술대회 프로그램은 7월 중순쯤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판사회학회 운영위원회

〈경제와사회〉 138호(6월 발간) 목차



■ 특집: 인구감소와 저출산의 사회 실태

인구감소지역과 비인구감소지역 간 인구 변화의 종단적 차이와 정책적 함의

장인수

저출산 시대의 혼전임신 현황과 사회경제적 결정요인

김근태

■ 기획: 이태원 참사와 재난의 사회학

재난의 사회적 원인과 의미 구성: 10·29 이태원 참사를 사례로

박상운

■ 일반논문

디지털 전환기 한국 청년노동시장의 계층화: 직업적 숙련계절을 중심으로
이승윤·박성준·김지원·박영재

1960년대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 한미관계와 '가속적 성장'의 욕망

김보현

라클라우 사상의 수용 과정과 쟁점: 국내 비판적 인문사회과학 연구에서 '라클라우의 이름'의 의미

현우식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내각총리대신의 원자력 담론: 재가동 담론과 발전주의 접합은 유효한 전략인가?

최종민

■ 서평

광주의 속살을 기대했는데...

신혜란, 『누가 도시를 통치하는가: 어느 문화 도시가 들려준 도시 정치 이야기』(이매진, 2022)
최정기

‘신자유주의’ 공정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정하원, 『공정 이후의 세계』(창비, 2022)
김민정

일본 노동운동의 궤적과 방향

이종구, 『기업사회 일본과 노동운동의 형상: 일본적 노사관계의 사회사』(북인더랩, 2022)
신원철

〈경제와 사회〉 링크

『경제와사회』 138호(2023년 여름호)는 학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저널레터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구학의 역습

■ 주은우 (편집위원장/중앙대)

외환위기가 터지기 전, 지금은 좋았던 그 시절로 간주되어 향수의 대상으로서 응답하라고 곧잘 호출되곤 하는 1990년대의 중반 무렵, 한 문학평론가는 식민지반봉건사회에 태어나 개발독재의 근대화 시대에 성장해 국가독점자본주의와 투쟁하며 청춘을 보내고 문득 정신 차려보니 포스트모더니즘의 후기산업사회에 살고 있노라 너스레를 떨며 짧은 시간 안에 한국 사회가 경험해 온 그 엄청난 변화를 축약해 무릎을 치며 고개를 끄덕이게 한 적이 있다.

사회학자들이 ‘압축적 근대화’ 또는 ‘돌진형 근대화’로 규정하기도 하는 이 급속한 성장과 변화 또는 발전 과정은 그 이후 30여 년 동안에도 계속 이어져, 이제 우리는 막대한 경제규모와 더불어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 경쟁력과 수출 역량을 갖추고 세계 정상급의 문화적 저력을 과시하며 군사 무기를 수출하고 로켓까지 우주로 쏘아 올리는 신자유주의적 금융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70년 전 정전협정이 체결되던 당시 전쟁의 폐허 속에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손자·손녀들 혹은 자식들이 선진국의 국민으로서 살아갈 거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유사 이래 가장 잘나가는 듯한 바로 이 시점에 한국은 인구가 줄어들어 아예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가 될 것을 걱정하는 처지가 되었다.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져 최단기간에 고령사회를 뛰어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인구가 감소하는 위험에 처했다는 우려를 늘 접하며 살게 된 지도 십여 년 이상 훌쩍 넘은 것 같다. 마치 대한민국의 국운은 여기까지가 정점이라는 것 같기도 하고, 그간 숨 돌릴 틈 없이 앞만 보고 질주해 온 한국 사람들 전체가 지쳐 떨어진 것만 같기도 하다. 그런데 성미 급한 한국 사회는 이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감소에 있어서까지도 압축적으로 돌진한다. 고령사회화의 선두주자 일본마저 제쳐버리고 가장 먼저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가 되었으니 말이다.

물론 출산율 저하나 인구감소는 자본과 국가에게 가장 다급한 관심사일 것이다. 무엇보다 그것은 직접적으로 노동력의 부족과 구매력의 저하를 뜻하고 병력 충원의 어려움과 조세수입의 감소를 뜻하기 때문이며, 그래서 주로 성장 잠재력의 저하라든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담론화되곤 한다. 푸코의 잘 알려진 논의에 따르면, 성(性)의 역사에 있어 근대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출산을 하지 않는 부부를 문제적 집단으로 정의하고 다양한 장려와 제한을 통해 생식행동을 사회적 관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었다. 이렇게 인간의 재생산을 통제하고 조절하려는 생권력(bio-pouvoir)은 이제 개인의 신체를 넘어 ‘인구’를 통치의 대상으로 삼아 작동하는데, 우리도 잘 경험했다시피 필요에 따라선 거꾸로 산아제한의 형식을 취하기도 했다.

(다음 면 계속)

하지만 그렇다고 인구감소가 위험하다는 생각은 착각이라거나 궁극적으로 자본과 국가의 이데올로기라고 간단히 치부해 버리는 것은 너무 쉽고 무책임한 반응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구약성경이 “땅 위에 번성하라”는 신의 말씀, 즉 명령을 전하고 있는 것처럼, 구성원의 인적 재생산은 어느 사회 공동체에 있어서도 존속과 유지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단 — 적어도 수적으로 — ‘번성’한 사회 공동체에서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는 다양한 수준과 영역에서 기존에 구축된 하부 구조들을 무너뜨리고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한다. 지금 한국 사회가 그렇다.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된 지역 붕괴와 맞물려 곳곳의 버스 터미널이 폐쇄되고 시골의 어르신들이 이동 수단을 상실하는가 하면, 인구와 물자가 과잉 집중되는 서울에서 초차 마을버스가 운행을 축소하는 곳이 생긴다. 연금개혁과 젊은 세대의 부양 부담 증가는 오래된 이슈이고, 많은 대학들이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했다는 ‘뉴스’는 이제 새롭지도 않으며, 각급 학교의 교실들은 점점 더 ‘여유’ 있는 공간이 되어간다. 운영이 어려워진 산부인과 의원들이 속속 문을 닫고 재생산의 물리적 장치 자체가 붕괴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소위 ‘출산율의 덫’에 빠졌음을 확인시켜 주고, 소아과 병원들이 자꾸 사라져 아이들이 아파도 제때 진료 받을 곳을 찾기 어려워진 부모들은 발만 동동 구른다.

인구가 감소해도 외국인 이주민들이 부족분을 채울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는 모양이다. 이견 분명히 대한민국이 경제를 비롯해 여러 측면에서 선진국의 위상을 유지할 거라는 전제 위에 가능한 전망일 것이다. 전제도 전제지만, 설령 그렇다 해도 그 인구 보충 과정이 한국 사회가 바라는 모습으로 이루어질지도 불확실하고, 이를테면 이주와 귀화는 분명히 다른 것이니 전자의 차원에 그친다면 그게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도 의문이다. 게다가, 아무리 민족 또는 국민이란 상상된 공동체일 뿐이고 많은 전통들이 상대적으로 최근에 발명된 것에 불과하다는 구성주의적 시각에 기대어 봐도 이런 전망과 기대(?)가 흔쾌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지구상에서 사라진다고 해도 어느 시점에 영토 내의 인구 전체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이 아닌 이상, 결국 국민국가들의 체계 속에서 수적으로 줄어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불투명할 따름이다.

물론 우리가 답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몇 푼의 출산 지원금이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 별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항목까지 포함된 형식적이고 주먹구구식의 저출산 대책에 막대한 예산을 퍼붓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리 만무하다. 일과 양육이 양립되고 여성의 경력단절이 예방될 수 있어야 하며, 출산과 양육이 남녀 공동의 몫이자 공동체와 사회의 책임이 되어야 할 것이고, 학생과 학부모를 끝없는 경쟁으로 내몰고 엄청난 사교육비의 부담을 안기는 교육제도를 뜯고쳐야 할 것이며, 열심히 일하며 얼마간 저축하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전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등, 결국 사람이 사람답게 대우받으며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동아시아 경제대국 한국, 일본, 중국이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인구감소를 겪는 대표적인 나라가 되어 유교자본주의의 역설이라 불리는 것만 봐도 이는 명백하다.

(다음 면 계속)

그러나 인구절벽의 위기를 걱정하는 것과는 달리 모두가 아는 이런 해결책들이 실현될 가능성이 커 보이진 않는다. 그것들은 모두 한국 사회의 사실상의 혁명적 변화를 뜻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로봇과 AI나 드론이 산업 현장과 전장에서 사람을 대체할 것 같고, 그렇다면 자본과 국가가 정말로 걱정하는 것은 구매력의 감소와 ‘값싼’ 노동력의 감소일 뿐이지 노동력 자체의 감소도 아니고 ‘인간’의 감소는 더더욱 아닌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게다가 개인주의 가치가 득세하고 나르시시즘의 문화가 만연하는 현실에서, 가족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포함한 복지의 확충, 교육제도의 개혁, 경쟁의 완화, 부와 자원의 보다 정의로운 분배 같은 것들을 실현한다고 출산율이 눈에 띄게 상승할지 고개가 갸웃거려지기도 한다. 하지만 미국은 차치하더라도, 앞서 발전한 유럽의 국가들이 일정하게 출산율을 회복해 온 것을 보면 이런 노력들이 최소한의 필요조건이긴 한 것 같다. 그리고 이 나라들의 인구 동향은 우리가 이에 더해 무엇을 더 고민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이기도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출산율의 저하와 인구의 감소, 고령화를 포함한 인구구조의 변화 등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 같다.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인구학은 사회학에서도 중요한 연구 분야였지만, 이후 인구문제는 주요 관심사의 바깥으로 밀려났던 것이 사실이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구화의 질서가 동요하면서 지정학의 중요성이 재발견되는 것과 함께, 인구성장과 저렴한 노동력의 지속적인 공급을 당연하게 전제해 온 그간의 사고방식이 깨지며 인구에 대한 관심이 다시 부상하고 있는 듯하다. 결정적인 사회적 변수이자 진정한 유물론적 토대, 최종심급으로서 인구가 귀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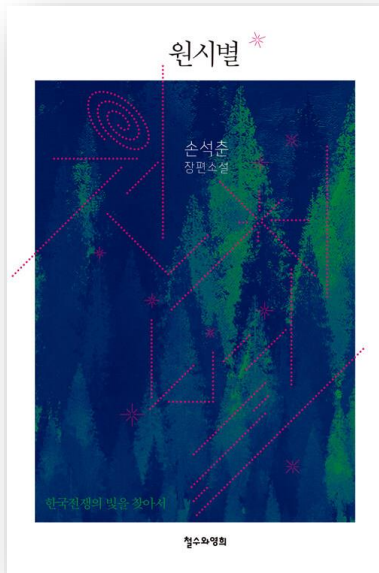
(끝)

〈경제와사회〉가
회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경제와사회〉는 회원 여러분의 특집 주제 제안 및 특집필자 추천, 서평대상 도서 추천(국내필자도서에 한정), 그리고 ‘논평과 토론’ 코너 투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회원들께서는 편집위원회 (crisocio@gmail.com)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원신간소개



원시별

철수와영희, 2023년 6월, 412쪽

손석춘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을 앞두고 출간된 『원시별』은 전쟁의 한복판에 놓인 세 청년을 통해 어둠 속에 갇힌 꿈이 어떻게 밤을 뚫고 빛을 이어가는지 처연하게 그려낸다. 『원시별』은 회피하고 싶은 비극적 역사를 오히려 품 안으로 끌고 들어와 더욱 속속들이 들추어낸다. 서투른 꿈과 갓 피우기 시작한 사랑을 전쟁의 격랑 속으로 파묻어야 했던 인물들은 이제 스물을 넘긴 청년들이다. 그리고 지금은 가기 좋은 산책로쯤으로 알려진 연희동 궁동산 일대가 이야기의 배경으로 등장한다. 이곳에서 벌어진 ‘연희고지 전투’는 한국전쟁 당시 서울 탈환의 최전선이었다. 급박하게 전개되는 서사는 인간의 의지와 힘으로는 어찌 할 수 없을 것 같은 역사의 파도를 효과적으로 담아낸다. 그러나 그 파도 속에서 세 명의 청년은 어둠 아래로 사라지면서도 결국에는 작은 빛 하나를 띄운다. 작가는 언제나 삶은 이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듯하다.

목차링크

신입회원

- 정회원 김유하 (서울대 사회학과) 백경민 (숭실대 정보사회학과)
백미록 (백석대 교양대학) 정현일 (창원대)
정경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준회원 → 정회원)
조정수 (부경대 글로벌자율전공학부) 주익현 (연세대 사회학과)
이상일 (연세대 사회학과)

회원현황 (6.12 현재)

- 총회원 271명 (정회원 239명 / 특별회원 14명 / 준회원 15명 / 기관회원 3개)

(※ 마지막 회비 납부일자가 2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회원자격이 중지되고, 회원현황에서 제외됩니다.)

운영위원회 활동 보고 (3.21~6.21)



- 3월 24일 제28회 비판사회학 콜로키움 개최
“취미에서 일자리로: 청년 노동자의 온라인 노동 플랫폼에 대한 종속성 형성과정 고찰”
- 3월 30일 춘계학술대회 준비위원 모임 (운영위원장, 연구위원장, 김주호, 정수남, 김재형 운영위원, 운영간사)
- 4월 7일 춘계학술대회 실무협의 (연구위원장, 부산대 사회학과장, 부산대 실무조교)
- 4월 8일 제2차 운영위원 전체회의
- 4월 29일 춘계 학술대회 개최 (“지역과 한국사회”, 부산대학교)
- 4월 29일 운영소위원회 3차 회의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장, 연구위원장, 운영간사)
- 5월 9일 정세토론회 공동개최 (“끝없이 퇴행하는 윤석열 정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동사회연구회, 한국산업노동학회와 공동 개최]
- 6월 12일 운영소위원회 4차 회의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장, 연구위원장, 운영간사)

2023년 임원진

- 운영위원회

회장 서동진(계원예술대) 운영위원장 김명수(전남대) 운영위원 김성운(문화사회연구소) 운영위원 박상희(서울시립대) 운영위원 서선영(충북대) 운영위원 이도훈(연세대) 운영위원 전운정(국회입법조사처) 운영위원 정수남(전남대) 운영위원 최종숙(민중화운동기념사업회)	부회장 최현(제주대) 연구위원장 김주환(동아대) 운영위원 김재형(방송대) 운영위원 박지훈(중앙대) 운영위원 신희주(가톨릭대) 운영위원 이정은(창원대) 운영위원 전원근(제주대) 운영위원 조은주(전북대)	부회장 최인이(충남대) 운영위원 강민형(전북대) 운영위원 김주호(경상국립대) 운영위원 박지현(대구대) 운영위원 육주원(경북대) 운영위원 이태정(성공회대) 운영위원 전의령(전북대) 운영위원 조혁진(노동연구원) 운영간사 장병호(중앙대)
---	--	---

-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주은우(중앙대) 편집위원 권오용(충남대) 편집위원 김철식(한국학중앙연구원) 편집위원 유형근(부산대) 편집위원 장귀연(노동권연구소) 편집위원 주혜진(대전세종연구원) 편집위원 하대청(광주과학기술원) 재외편집위원 구해근(Univ. of Hawaii at Manoa) 재외편집위원 박현옥(York University)	편집부위원장 지주형(경남대) 편집위원 김민정(성공회대) 편집위원 김철효(경상국립대) 편집위원 윤상우(동아대) 편집위원 정재원(국민대) 편집위원 채오병(국민대) 편집위원 홍덕화(충북대)	편집위원 구본우(창원시정연구원) 편집위원 김여진(강원대) 편집위원 박정미(충북대) 편집위원 윤상철(한신대) 편집위원 정태석(전북대) 편집위원 최현(제주대) 재외편집위원 권학준(리쓰메이칸대) 편집간사 강석남(중앙대)
---	--	--

+ 회원가입 및 회비납부 안내 +

□ 정회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이상의 학력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경제와사회> 투고자격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회비는 개인의 상황과 능력에 따라 아래의 회비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 | |
|----------------------------|--------------------------------|
| (1) 연 24만원 (월2만원) | (2) 연12만원 (월1만원) |
| (3) 연6만원 (비전임/정년퇴임교수/박사과정) | (4) 평생회원 특별회비 50만원 이상 (정년퇴임회원) |

□ 준회원: 석사과정 대학원생 (준회원 회비: 연2만원)

▶ 회비납부계좌: 국민은행 533301-01-096442 (예금주: 비판사회학회)